

부편 수업 활동 계획안

[illegible]

		사람에게도 이 에너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황토 옷 사진을 보여주며) 물장이가 물들인 황토 옷을 입고 (황토 팩 사진을 보여주며) 흙을 몸에 바르고 (맨발걷기 사진을 보여주며) 흙을 밟고 다녀요. 이렇게 우리 몸이 흙에 직접 닿으면 땅의 기운이 느껴져요. 찌릿찌릿. 사람들에게 몸도 건강해지고 감기도 낮게 하는 힘을 주고 있어요. T : 우리도 흙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해볼까요? T : 그럼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맨발로 걸어볼까요? - 유아가 양말을 벗는 동안 빔을 끄고 옆으로 치워둔다.	황토 팩 사진,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 사진
전개 (15분)	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 모든 유아가 양말을 다 벗으면 한줄 기차한 후, 차례로 바깥놀이터로 나간다. T : 맨발로 바깥놀이를 하면서 흙의 기운을 받아보아요. · 바깥놀이터의 흙을 밟으며 자유롭게 놀이한다. - (반 타임으로 활동이 진행되므로 앞 파트가 바깥놀이를 하는 동안 뒤 파트와 다시 교실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뒤 파트의 도입이 끝나면 앞 파트와 함께 바깥놀이를 10분 정도 한다.) T : 흙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T : 발바닥에 닿는 흙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해요.	
정리 (5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활동을 마무리한다. - 수돗가에서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교실로 올라간다. - 모임자리에 앉아 이야기 나눈다. T : 흙의 기운을 느껴보니 어땠나요? T : 선생님은 흙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도 가벼워진 기분이예요. T : 흙에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T : 우리의 몸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건강해지고 있어요. - 손을 씻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한다.	수건
평가	· 흙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가? · 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가?		
자기 평가	실습을 시작하고 첫 부분수업이었다. 이전에 다른 기관에 참관을 갔을 때도 몇 번 부분수업을 했었지만 실습에서 하는 부분수업은 느낌이 전혀 달랐다.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떨렸다. 또한 현재 기관의 특성상 생태교육이라는 특수한 교육철학에 따라 활동의 전개와 목표가 다른 기관과는 달랐다. 그래서 흙을 단순히 만져보고 느껴보는 체험 활동이 아니라 흙의 생명과 기운을 느끼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실습생인 나로서는 활동을 진행하기란 무척이나 까다롭고 어려웠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흙의 기운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지, 발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계획했던 발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활동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많이 놓쳤다. 활동이 기본은 철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준비가 잘 안되니 활동도 우왕좌왕했다. 준비성과 태도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